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231호 (음력 9월 21일)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전남 943.6명'…전국 17개 시·도 1위

호남지방통계청, 2020년 호남권 사망현황 분석

전국 유일 900명대…사망원인, 암→심장질환 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 당 조사망자 수(조사망률·粗死亡率)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조사망율은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다. 1년간 신고 된 총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공개한 '2020년 호남권 사망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사망자 수는 1만7436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이 94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북(865명), 전북(816.2명), 강원(796.9명), 충남(760명) 순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 2019년에 조사망률 '9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2020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900명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평균 조사망률 593.9명 대비 37% 높은 수치다. 같은 호남권 중 광주는 539.0명으로 11위에 그쳤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1635.4명)으로 조사됐으며 곡성군(1546명), 함평군(1539명), 보성군(1507명)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북 지역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율에 의한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암'이 전체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역별 연령표준화율 사망자는 전남 92.4명(28.1%), 광주 86.8명(28.1%), 전북 84.3명(27.2%)으로 나타났다.

암 질환 다음으로는 '심장질환'이 사망원인 2위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 전남 27.6명(8.4%), 광주 26명(8.4%), 전북 26.7명(8.6%)으로 파악됐다.

심장질환에 의한 전남지역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곡성군(40.6명)이 가장 높았으며, 구례군(39.6명), 해남군(36.6명)이 뒤를 이었다.

뇌질환 사망률은 나주(27명), 화순군(26.5명), 곡성군(26.3명) 순으로 높았다.

고의적 자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고흥군(41.5명), 진도군(39.4명), 해남군(3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민, 어등산 '놀이·쇼핑시설' 옛 신양파크 '시티타워' 개발 선호

600명 대상 설문조사…관광·놀이·쇼핑 시설 부족한 광주 현실 반영

광주시가 민관공동 개발을 검토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광주시민 10명 중 7명 꼴로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또는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과 관련해 시티타워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5일 광주·전남지역 뉴스플랫폼, 사랑방 뉴스룸(news.sarangbang.com)은 지난 15~21일 일주일 간 지역민 600명을 대상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7%가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서길 원하는 시설로 놀이공원·아쿠아월드 등 테마파크를 꼽았다.

프리미엄 아울렛·창고형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라는 답변도 31.8%에 달했다. 이는 관광·놀이시설 및 쇼핑 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광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마파크는 40·50대에서, 대형 유통업체는 20·30대에서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경관녹지 등 공원시설 16.5%, 특급호텔 5.2%, 기타 1.2% 등이 뒤를 이었다.

16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 단지 개발 방식에 대해선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 공동개발' 여론이 높았다. 바람직한 개발방식을 묻는 질문에 광주시민 42.5%가 민-관 공동개발을 꼽았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개발(27.3%), 광주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27.2%), 잘 모르겠다(3%)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간개발을, 여성은 민관 공동개발을 각각 우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공개발에 나설 무등산 옛 신양파크호텔에 대해서는 공공개발 찬성 의견이 64%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7.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2%.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명 중 1명(30.2%) 꼴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시티타워 건립'을 꼽았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만큼 자연생태계 복원(23.2%), 특급호텔(17.8%), 유스호스텔 활용(15%), 청소년 수련시설·어리이 전용 공연장(10.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는 남성 338명(56.3%), 여성 262명(43.7%)이 각각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10명(35.0%)으로 가장 많고, 30대 176명(29.3%), 50대 125명(20.8%), 60대 이상 46명(7.7%)순이다.

거주지별로는 광산구가 211명(35.2%), 서구 131명(21.8%), 북구 130명(21.7%), 남구 66명(11.0%), 동구 39명(6.5%), 기타 23명(3.8%) 등이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 포인트다. 광주시민 30%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과 관련해 시티타워 조성해야 한다고 꼽았다.

'전두환 규탄' 경남 시민사회, 오월영령 앞 무릎 참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 합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분향을 마친 뒤 무릎 참배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사적모임 10명까지' 일단 유지… "연말연시 확산 방지"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은 10인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5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수본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마련한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11월 초부터 전환 기준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병상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시도하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 10명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다중시설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미접종자 4인과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과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